

'제3의 법칙' 실험 영상 읽기-

#EBS 다큐프라임 [인간의 두 얼굴] 1부, '상황의 힘' 중에서-

'3의 법칙'이란 무엇일까?

EBS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3의 법칙' 영상을 통해, '협동의 힘', 'team'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승강장에 끼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승객들이 전동차를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2년 뒤, 우연일까요? 지하철 7호선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찍힙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벌어진 이 장면, 이 속에 상황을 바꾸는 우리의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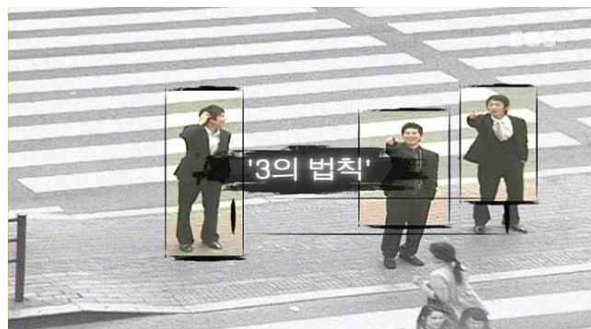


최인철(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우리는 상황에 종속돼 있는 사람이지만 소수가 전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자다.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짐바르도(스탠포드대 심리학과 교수), “지금까지 우리는 상황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상황에 지배당한다.
인간은 상황을 지배한다.



2008년 4월 서울 강남역에서의 실험- 횡단보도에서 세 남자를 따라 덩달아 하늘을 올려다봤던 사람들, 하지만 거꾸로 돌려보면 이 속에서 상황을 움직이는 '3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만 볼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

을 멈추고 다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일 때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 세 명이 모이면 상황이 바뀌는 것일까요?



조지 켈링(러트거스대 심리학 교수), “그게 바로 전환점이에요. 2명과 3명의 차이죠. 이건 좋은 예입니다. 2명일 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3명이 되니까 전환점이 형성됩니다.”

짐바르도(스탠포드대 심리학과 교수), “3명이 모이면 그때부터 집단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적 규범 또는 법칙이 되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3명이 같은 행동을 하는 지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죠.”

세 사람이 함께 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3의 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2005년 10월 17일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승강장.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는 순간, 한 승객이 열차와 승강장 틈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객들이 내리더니 전동차에 손을 얹고 다함께 밀기 시작하는데, 순간 기우뚱- 전동차가 움직입니다. 그 사이 사람들은 선로에 기인 사람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이상춘(당시 역무원), “몇 사람이 밀어서 이게 밀리지 않거든요. 이게 아무리 밀어도 이 큰 열차가 밀리지 않거든요.”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였을까요? 그곳에 '3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김윤영(당시 목격자), “어떤 한 아저씨께서 큰 소리로 지하철을 함께 밀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두 분, 세 분이서 같이 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움에 손을 얹은 처음 한 사람, 혹시나 하고 손을 보탠 또 한 사람, 그리고 희망을 안은 세 번째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인간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톤짜리 전동차를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상춘(당시 역무원), “일시에 사람들이 이제 구령을 맞춰가지고 ‘밀어!’ 하면서 그냥 쪽 한 꺼번에 힘을 주니까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김윤영(당시 목격자), “많은 분들께서 밀기 시작하니까 지하철이 정말 움직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짐바르도(스탠포드대 심리학과 교수), “최소한 3명이 모이면 하나의 움직임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3의 법칙'을 따르게 할 것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영웅이 되려면 '3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최인철(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나,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게 되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지배당하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역시 우리들입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외쳐야 되죠. “이 지하철을 다함께 밀자!”고 말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까요?

